

## 2. 현지조사 지역 선정

줄다리기는 설 명절과 출롱 췌 축제 기간에 연행되기 때문에 연구가 시작된 3월에는 현장연구가 이루어질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 거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3년 설 명절 축제 기간 중 줄다리기 관련 현지조사가 진행된 시엠립 주의 세 마을은 다음과 같다.

1. 치크렝 군, 스페안 트눗 면, 츠레스 마을
2. 치크렝 군, 크바오 면, 캄보 오르 마을
3. 프라삿 바콩 군, 바콩 면, 트날 트롱 마을

현지조사 지역으로 시엠립이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조사팀은 줄다리기를 실제로 관찰할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줄다리기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받았다. 직접 관찰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확인은 매우 중요했다. 관찰을 하지 못하면 현지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줄다리기가 실제 진행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막상 때가 되어 현장에 가 보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줄다리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낮다 보니 춤을 비롯한 다른 공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행사 진행 여부 재확인이 현지조사 수행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팀은 시엠립 지역 주민들과 이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보다 용이했다. 또한, 일부 연구원들은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엠립은 크메르 고대 문명의 요람이며, 앙코르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다시 말해 현대의 사상과 관습은 바로 ‘고대’ 문명에서 이어져 내려오거나 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통의 연속성과 단절을 관찰하는 데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 3. 현황

### 3.1. 소멸 위기

줄다리기가 소멸 위기에 처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전통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 지역 원로들은 줄다리기를 후대에 전승하는 일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줄다리기의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장 연구 결과, 줄다리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연행이 중단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연행을 중단한 지역도 있었고, 놀랍게도 바로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역도 있었다. 연행이 중단된 이유를 묻자, 줄다리기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승 활동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댄스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놀이 문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그림 4).

줄다리기 연행이 중단된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밧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캄보 오르 마을의 경우, 연구팀은 줄다리기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자 사원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다. 밧줄로 쓸 덩굴을 구하러 숲으로 간 마을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밧줄이 없으면 줄다리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도 현지조사팀의 지원으로 시장에서 플라스틱 밧줄을 구입할 수 있었다. 사원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원로 몇 명이 밧줄을 사원으로 가져오자 줄다리기가 전통 방식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적 상황 때문에 유형의 재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줄다리기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 3.2. 줄다리기 유형 구분

현지조사에 따르면 줄다리기는 지리적 배경과 벼농사 관련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캄퐁툼, 시엠립, 프레아 비헤아르, 반테이 메안체이, 오다르 메안체이 등 캄보디아 북부 지역은 현대화와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지역이다. 게다가 벼농사 기반 공동체이기 때문에 줄다리기는 벼농사와 관련이 깊으며 제의적 의미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 2) 캄퐁참, 프레이벙, 스바이리엥, 칸달 등 남부 지역은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줄다리기는 제의적 의미보다는 양팀 간의 힘겨루기라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연행을 중단한 지역이 많다.
- 3)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줄다리기를 힘겨루기 및 순수한 놀이로 간주한다. 또는 놀이 자체가 거의 연행되지 않는다.